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유어그 슈미드(Jürg Schmid) 내한. 대한민국 관광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감사의 자리 가져 2015 스위스 스페셜리스트 13 명 배출

한국의 여행업계 종사자 및 기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
두루누비(KoreaMobility) 정책 세미나 참석
스위스정부관광청의 새로운 테마,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 소개
스위스트래블아카데미 9기 졸업식

스위스정부관광청 CEO, 유어그 슈미드(Jürg Schmid)가 지난 2015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내한해 한국의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취리히에 위치한 스위스정부관광청 본사는 그동안 한국 시장이 보여준 높은 성장률과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마케팅 활동들에 주목하여 왔다. 이에 유어그 슈미드 청장은 방한 기간 동안 여행업계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여행시장 동향을 더 심도있게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한국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패키지와 개별여행의 비율이 거의 동등하다고 들었다. 개별여행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스위스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에 기여해준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여행객들이 스위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룹 여행 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최근 한국 여행자들이 지향하는 독립적인 여행에 필요한 세세한 요구사항들까지 만족시켜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디어를 통해 스위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접하게 되면서 독립적으로 스위스를 돌아보는 개별 여행이 성장하고 있다.”고 스위스정부관광청 김지인 소장은 최근의 여행자 패턴을 분석한다. “대중적인 곳을 가되 그곳에서 액티브한 패러글라이딩과 자연을 좀 더 만끽할 수 있는 하이킹에 나서고, 거기에 먹거리 체험을 더하면 안성맞춤이다.”고 덧붙인다.

실제로 2014년 스위스 내 한국 방문자의 숙박일수가 최초로 25만박을 넘어 263,189박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수치는 10년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성장을 한 것이며, 스위스 트래블 시스템(Swiss Travel System)의 기차 패스 판매도 125%나 성장하여 한국의 개별여행자 시장의 저력을 보여준바 있다.

유어그 슈미드 청장은 또한 두루누비(KoreaMobility)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 지자체 및 걸기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는 자리도 가졌다. 두루누비는 하이킹, 자전거, 산악자전거, 스케이트, 카누를 이용해 스위스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네트워크 시스템인 스위스모빌리티(SwitzerlandMobility)의 한국판으로,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한 “Sharing the Vision 2015-16”행사에서는 유어그 슈미드 청장이 직접 스위스정부관광청의 2015년 및 2016년의 테마인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를



소개하기도 했다. 스위스 그랜드 투어는 자동차로 직접 운전을 하며 1,600km 에 달하는 여정 동안 스위스의 속살과 보석같은 하이лай트를 보다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여행방법이다.

Sharing the Vision 행사 중 스위스 트래블 아카데미 9기 졸업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 2015년 과정을 거쳐 졸업한 스위스 스페셜리스트는 GTA 이슬기 대리, KRT 민상근 대리, 가야투어 여운규 대리, 랜드스마일 김희정 대리, 롯데관광 오혜린 주임, 세계로여행사 유규상 대리, 여행박사 황보혜지 대리, 인터유로 이승희 과장, 인터파크투어 조안나 대리, 자유나침반 윤민지 과장, 하나투어 나해연 과장, 이광재 대리, 강이슬 대리로 총 13명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